

300-2-093. 신문조서(朴憲永 외 10명 치안유지법 위반)**■ 朴憲永 외 10인의 治安維持法 위반사건 기록 수록**

- 新灣青年會員 28명과 변호사 朴有根 등 5명의 폭력내용 기록이 있고(1925년 11월 22일), 사건수사중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회 자료가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 11월 27일 獨孤侄에게 搜索조사가 있었고, 12월 4일 고려공산청년회 同行보고가 있었다.
- 林元根은 12월 1일, 朴憲永은 12월 1일, 朴吉陽은 12월 2일에 청취서를 작성하였고, 12월 4일 朴憲永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金尙珠·曹利煥·林元根·朴郁陽·朱世竹·兪鎮熙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25년 12월 4일에 실시되었고, 林亨寬·獨孤侄·趙東根은 12월 5일에, 金景陽은 6일에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 林亨寬은 5일에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獨孤侄은 郭山面長 金珽近으로부터 명예 훼손죄의 고소가 있었다. 내용은, 경찰관주재소 숙사건축 등을 위하여 面民으로부터 費用을 증수하였다는 郡 기부금 강요와 임의 건축청부 결정이라는 사실무근을 10월 23일 조선일보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 후 고소 보충조사가 있었으며, 金珽近의 供述書 작성이 1925년 11월 21일에 있었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 獨孤侄·林亨寬·朴憲永·林元根·曹利煥·金尙珠에 대한 2회 신문조사는 12월 8일에 있었고, 張順明·申哲洙의 신문조사는 12월 9일에 있었다. 朴憲永의 3회 신문조사, 林亨寬의 4회 신문조사도 12월 9일에 있었다.
- 朴憲永 외 43명에 대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憲永·林元根 등은 1922년 4월 공산주의 선전을 위하여 中國에서 鮮內에 들어와 검거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출옥 후에도 공산주의 선전에 노력하며 단체를 조직하였고, 呂運亨·獨孤侄과 함께 1925년 4월 18일 朴吉陽 등 18명이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자 중앙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고, 安相勳 등 20여 명이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치안유지법 1조, 刑法 260조 1항 위반이라 하였다.
- 朴憲永 외 40여 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1925년 11월 24일 신의주경찰서에서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에게 送致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검사의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朴憲永·林元根·獨孤侄·林亨寬·金尙珠·曹利煥·金景瑞·朴吉陽·兪鎮熙·朱世竹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 申哲洙·張順明은 12월 7일에 검사 신문조사가 있었고, 朴憲永의 2회 신문조사는 12월 17일, 林元根의 2회 신문조사는 12월 19일에 있었다. 朴憲永·林元根의 3회 신문조사는 12월 20일, 林亨寬·金尙珠·曹利煥·朴光陽은 20일, 金景瑞·洪增植은 21일, 趙東根·朱世竹은 22일, 朴憲永 4회 신문조사는 12월 22일에 실시되었고, 洪增植·申哲洙·張順明은 22일에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각 조회서가 있다.